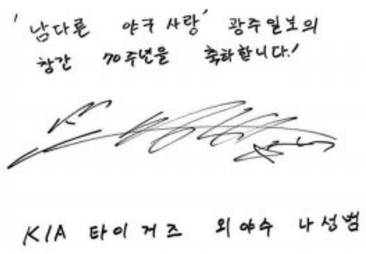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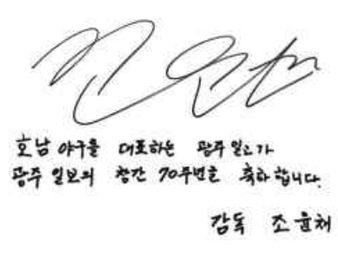
스포츠 스타들 광주일보 창간 70주년 축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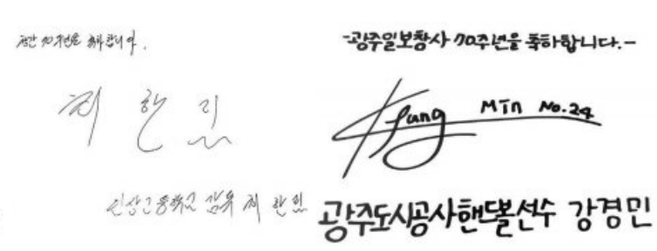
아픈 역사를 간직한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스포츠는 하나의 위안거리였다. 특히 광주·전남 스포츠 스타들의 활약은 지역민들을 울고 웃게 만들었다. 코로나19 펜데믹 속에서 지역민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있는 광주와 전남 출신·소속 스포츠 스타들이 광주일보 창간 70주년을 축하하는 응원 메시지를 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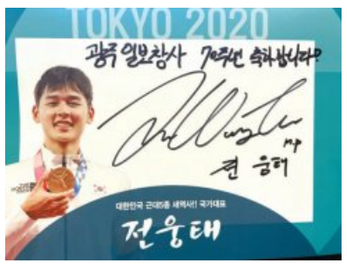
2020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따내며 올림픽 사상 첫 양궁 3관왕에 오른 안산(광주여대)을 시작으로 한국 육상의 '간판' 김국영(광주시청), 우리나라 근대 5종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의 주인공 전웅태(광주시청), 프로야구 최고의 타자 KIA타이거즈 나성범, 프로축구 시민구단 광주FC 엄지성, 광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AI페퍼스 김형실 감독,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 에이스 강경민, 야구 명문 광주일고 야구부, 정읍 인상고 야구부까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활약중인 이들의 활약은 지역민들에게 큰 힘을 주고 있다.

지난 70년 간 광주·전남 체육의 역사를 함께해온 광주일보는 앞으로도 이들과 함께 지역민들에게 큰 감동과 환희를 선사할 것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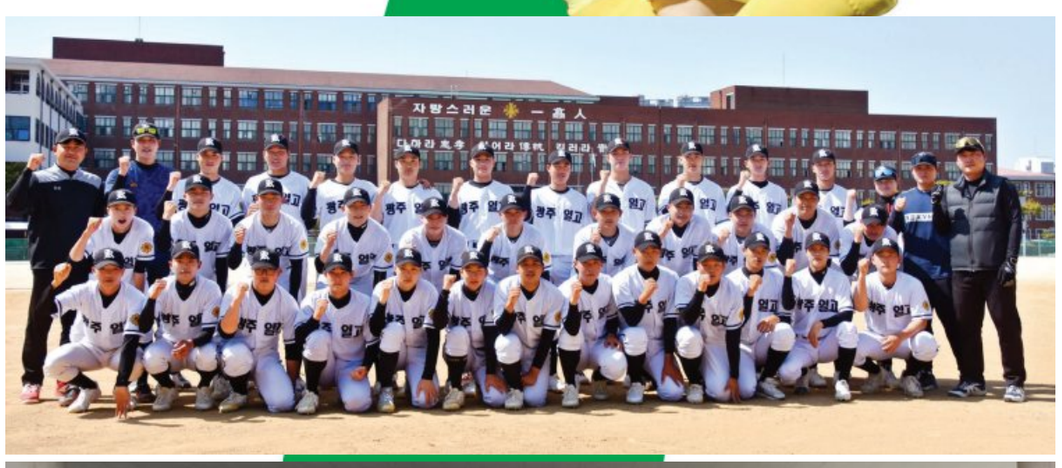








"광주일보처럼 감동과 환희 전할게요"



왼쪽 위부터 양궁선수 안산(광주여대), 광주FC 엄지성, 광주일고 야구부, 정읍 인상고 야구부.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근대 5종 국가대표 전웅태(광주시청), KIA 타이거즈 나성범, 광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AI페퍼스 선수단과 김형실 감독, 광주도시공사 강경민.